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6.(수) 12:00
(지 면) 2026. 9. 17.(목) 조 간

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 행안부, 9월 17일부터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제공
-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대출 심사 기간은 단축하고, 대출사기 예방은 강화
- 모바일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계 확대... 비대면 간편 금융 서비스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7일(목)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이번 연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대면·간편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

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이번 연계로 국민은 대출 심사 기간이 1일 이상 단축(5일→4일)되어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은행 역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최이호 (044-205-3141)
		담당자	사무관	박지연 (044-205-3155)

